

심자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https://www.fgtv.com> 1958년 5월 18일 창립(설립자 조용기 목사) 통권 제69권 23호

주보

2026. 6. 7.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엄태욱(목회)**
김윤수(교무) 차진호(청년·개척)

◆ 2026 표어 ◆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 2026 교회목표 ◆

1.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3.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국제교단한국총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성찬예배순

2026. 6. 7.

Communion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nt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 258장 2·3·4부: 383장 주일저녁: 337장 다같이

Hymn (통190장) (통433장) (통363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nt

1부 행(Acts) 9:10~15 2·3·4부 롬(Rom.) 8:31~35, 37

5부 대학청년 삼상(1Sam.) 17:45~47 주일저녁 왕상(1Kgs.) 19:1~8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눈을 떠야 하는 이유 엄태욱 목사

Why We Must Open Our Eyes Rev. Taewook Um

2·3·4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영훈 목사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나의 물매와 물맷돌 오수황 목사

My Sling, My Stone Rev. Soohwang Oh

주일저녁 다시 불을 지피소서! 김정대 목사

May the Fire Burn Again! Rev. Jeongdae Kim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성찬 229장 다같이

Communion (통 281장) All Toget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2026. 6. 10.

수요일예배순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30분 정용훈 목사 2부(스크린) 14시 3부(수요찬양)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2부: 15장(통55장) 다같이
 기도 1·2부: 황호욱 장로
 성경봉독 1·2부: 시(Ps.) 34:8 3부: 마(Matt.) 1:1 사회자
 찬양 1·2부: 베데스다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하나님을 아는 은혜 1·2부: 이영훈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3부: 신에스티 목사
 헌금기도 1·2부: 이진봉 안수집사

2026. 6. 12.

금요일성령대망회순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안현주 목사 20시 30분
 기도 김한수 장로
 성경봉독 왕상(1Kgs.) 20:13~15 사회자
 찬양 겹세마네 찬양대
 설교 위기 속에 증명되는 하나님의 실재 업태욱 목사

2026. 6. 13.

토요일예배순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이상영 목사 오전 7시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04장(통404장) 다같이
 기도 변국찬 장로
 성경봉독 요일(1John) 4:7~10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정용훈 목사
 헌금기도 박희월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저녁	에벤에셀	윤 현 진	마라나타	
주일2부	베들레헴	데이비드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요1부	베데스다	김 호 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일3부	예루살렘	김 광 현	주가 일으켜 주신다	수요찬양	호 산 나	윤 규 설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일4부	나 사 렷	이 중 진	넉넉히 이기느니라	금요일예배	겹세마네	박 상 현	주님을 찾아 불지어다	
5부	대환절	임마누엘	이 수 범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토요일예배	가브리엘	이용 중	시편 8편

오늘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이하줄임) (롬 8:31~35, 37)

사 회

1부 07:00 권 성 민 목사
 2부 09:00 김 민 철 목사
 3부 11:00 김 형 건 목사
 4부 13:00 윤 호 근 목사
 5부 14:30 김 성 모 목사
 주일저녁 17:00 조 동 재 목사

대표기도

1부 이상준 B 장 로
 2부 조 숙 현 장 로
 3부 김 낙 영 장 로
 4부 성 열 안 장 로
 5부 박 준 우 장 로
 주일저녁 유 창 선 장 로

헌금기도

1부 임 형 남 안수집사
 2부 박 성 근 안수집사
 3부 배 성 기 안수집사
 4부 윤 의 환 안수집사
 5부 함 형 진 성 도
 주일저녁 이 중 환 안수집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롬(Rom.) 8:31~35, 37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실패와 질병으로 인해 깊은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와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God Who Helps U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시 121:1~2, 7~8).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곤고, 슬픔과 외로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두려움에 시선을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또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God Who Establishes Us)

마귀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정죄하여 우리 인생을 고통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요 10:10).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과거의 실패와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3. 사랑의 확신 (Assurance of Love)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과 곤고, 박해와 위험도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통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롬 8:38~39).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롬 8:37).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 오늘은 세계선교헌금 작정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교헌금 작정에 모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

1. 6월 첫째 주 새벽예배-일시: 6월 8일(월)~6월 12일(금) 새벽 5시 30분 / 장소: 대성전
설교: 이영훈 목사(9일 제직특화), 이상영 목사(8일), 엄태욱 목사(10일), 김민철 목사(11일, 12일)
2. 남선교회 2026년도 6월 헌신예배-일시: 6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김미정 선교사
3. 장로회 2026년 6월 월례기도회-일시: 6월 19일(금) 오후 7시 / 장소: 뽕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배정희 선교사

모 집

1. 교육영성훈련원 제6회 성령페스티벌(내적치유세미나)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69, 7483
일시: 6월 9일(화)~11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브니엘성전(비전센터 6층)
2. 교육영성훈련원 오순절사랑훈련학교 제184기 참가자 모집-문의 ☎ 02-6181-7471, 7465
훈련기간: 6월 25일(목)~27일(토) 2박 3일 / 장소: 영산수련원(경기도 파주)
3. 교무국 찬양특별교구 베다니 찬양대(주일부예배) 연주자 모집-문의 ☎ 02-6181-6702, 6704
자격: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성령 침례받은 성도, 4년제 대학 전공자 / 모집파트: 트럼펫, 트럼본, 팀파니, 첼로
4. 남선교회 홍보실 실원 모집-문의 ☎ 02-6181-7049
자격: 본 교회 등록 집사이상, 주일봉사를 원하는 25~55세이하 남·녀 / 모집인원: 찬양팀 상어(남)2명, 악기(드럼 포함) 2명

안 내

1.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수집사회 제39차 전 교인 사랑의 헌혈
일시: 6월 1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 / 장소: 대성전 앞 헌혈버스, 베다니홀 / 주관: 대한적십자사
3. 이영훈 목사님의 신간 NEW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 신앙계 6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6월 7일(주일) 마라톤 개최로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제 07:00~10:00).

◆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6/14, 6/17, 6/19, 6/20) 대표기도

주일예배(6/14)					수요일예배(6/17)	이유세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6/19)
이경우	이주억	김철웅	유순형	조영담	박규생	토요일예배(6/20)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결에 머문 판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엣빌에는 전쟁 참전 군인을 위한 특별 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을 맡은 루 올리베라 판사 역시 걸프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2016년 봄, 그의 법정에 조 세르나가 섰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세 차례 파병돼 훈장을 두 개 받은 미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동료를 잃고 물에 잠긴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폐소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술에 의지해 버티던 그는 음주운전 보호관찰 중 검사 결과를 속인 죄로 하룻밤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리베라 판사는 법 집행을 위해 그의 잘못을 묵인할 수 없었지만, 좁고 어두운 독방에서 폐소공포증으로 고통받을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판사는 직접 만든 음식과 같이 입을 옷을 들고 감방으로 들어가, 세르나에게 좁은 침상을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 누운 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훗날 세르나는 그 밤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온 순간, 나를 가두고 있던 벽이 사라졌습니다.”

판사는 잘못에 책임을 물으면서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곁을 지켜 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YEIDO FULL GOSPEL CHURCH



기독교 대한 청년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E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